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http//www.mke.go.kr
2011년 6월 1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소프트웨어산업과 정대진 과장(02-2110-5121), 안홍상 사무관(02-2110-5123)		

"SW개발 성공의 첫단추는 요구사항 명확화"

- 「SW시장 Global Practice : 新RFP 체계 및 분할발주 토론회」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 : 최중경)는 6월 16일(목) 삼성동 코엑스에서 **「SW시장 Global Practice 도입을 위한 토론회」를 개최**함

○ 금번 토론회는 **공공 SW사업의 품질을 제고**하고, 국내 SW기업의 **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**하기 위해 SW사업 수발주 단계에서 **선진 제도의 도입 필요성**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됨

□ **주요 공공SW 사업 발주자와 국내 SW사업자**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그간 **지식경제부가 시범사업**으로 추진해온 **"新RFP 체계 도입 방안"**과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**"SW 분할발주 도입 전략"**이 발표됨

【 新RFP 체계 도입 방안 발표 내용 】(삼일 PWC)

□ **불분명한 업무 정의 및 기술요건**으로 기술우위 사업자 선정을 위한 **평가기준 수립이 어렵고** SW사업 **산출물의 품질에도 영향**

*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**약 67%**가 現 RFP의 상세화 수준이 낮다고 응답, **97%**는 RFP 내용 명확화가 필요하며,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생각

□ 新RFP 체계 컨설팅 사업으로 **RFP의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정의**한 경우, 사업 수행시 요구변경 위험요소가 감소하며 사업 만족도 상승

* 기업은행 시범사업시 요구사항 변경 조사결과 전체 298개 요구사항 중 20개(6.8%) 변경, 일반적인 SW사업 변경률(30.7%, KOSA, '04.6월) 대비 극히 감소

* 발주기관은 평소 사업 수행시보다 모든 발주 단계에서 만족도 상승(평소 만족도가 50%로 가정시 신RFP 체계 발주시 만족도가 평균 약 75% 수준)

□ 新RFP 체계 등 선진 제도의 확산을 위해 **SW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변화**와 분할발주 등과의 연계를 통한 **수발주 프로세스 개선** 필요

【 분할발주 도입 전략 용역 발표 내용 】(SW선진화포럼)

□ 성공적인 SW사업 수행과 SW사업의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**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개선**

* 발주자의 불명확한 요구사항이 SW이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('08.12, KIPA)

○ **선진국**(美·日 등)은 사업 성공률 제고 및 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**기본설계 이후 공정개발**을 별도로 실시하는 **분할발주 실시**

□ 분할발주는 **요구사항 규격화**로 **개발사업과 발주관리가 전문화**되어 현재 관행적으로 실시 중인 **통합사업의 위험 대폭 감소** 전망

○ 분할발주 성공시 **발주자에게는 예산 절감과 품질 향상**을, **사업자에게는 공정한 사업기회와 정당한 대가**를 기대할 수 있으나,

○ **분할과 통합 실패**시 **비용·기간 상승, 책임소재 불분명** 등의 부담으로 **사전에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성공의 관건**

□ 발표에 이어 발주자측(정부)과 수주자측(SW기업)의 **패널토의***와 함께 **산·학·연 각계의 의견 개진 및 질의·응답**이 이어짐

* 패널 토론자 : (발주자측) 행안부·국토부 과장, (수주자측) 날리지큐브·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, ITSA 전무, 삼성 SDS 상무, (학계) 국민대 김현수 교수(좌장), 숭실대 심기보 교수, 고려사이버대 황인수 교수 및 지경부 SW산업과장

○ 참석자들은 **신RFP체계**에 대하여는 도입 필요성과 **조속한 시일내 확산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** 하였으며, **SW 분할발주**에 대하여는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**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**이 제기됨

□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**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**은 인사말을 통하여 **"SW개발시 과업내용과 범위를 명확히** 하는 것은 **SW 개발 성공의 첫 단추이자, SW업계의 숙원**인 만큼, Global Practice를 확산시켜 나가겠다."라고 언급함

○ 아울러, "Global Practice가 정착되면 **SW 개발환경이 개선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풍토 조성**도 기대할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힘

□ 지식경제부는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과 더불어 2주간(6.16~6.30) **SW산업종합정보시스템**(www.swit.or.kr)을 통해 **전자토론회도 개설**할 계획이며,

○ 이를 바탕으로 **국내 실정에 맞는 Global Practice 기반의 선진 SW 사업 수발주제도 적용 방안을 도출**하여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추진에 활용할 예정임

□ 한편, 동 토론회와 함께 개최된 **「2011년 상반기 SW산업 전망 컨퍼런스」**에서는 **하반기 SW산업에 대한 전망**과 함께 **클라우드 컴퓨팅, SNS** 등 SW산업의 **최근 이슈**에 대한 **성공사례 및 전략 분석** 등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함

○ **첫 번째 세션**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, 일본 대지진, 중동의 자스민 혁명 등 **상반기 세계 경제의 흐름**과 **국내외 SW산업의 상반기 비즈니스 및 정책 동향**에 대해 분석하고 **하반기 국내외 SW 시장에 대한 전망과 예측**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

○ **이어지는 발표**에서는 **솔루션 마켓과 새로운 시장기회**를 주제로 **SaaS 마켓 플레이스**인 **'OAASYS'**를 통해 본 **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공 전략과 향후 발전방향**을 소개함

○ **마지막**으로 날로 극심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**국내 모바일 오픈마켓의 전략**을 살펴보고 **국내시장에서 모바일 오픈 마켓의 가능성과 성공을 위한 기업의 전략**을 조명함

※ 별첨 : 1) Global Practice 기반의 新RFP체계·SW분할발주 토론회 및 '11년도 상반기 SW산업 전망 컨퍼런스 계획

2) 新RFP 체계와 분할발주의 의의 및 개념

〈 붙임 1 〉 Global Practice 기반의 新RFP체계 · SW분할발주 토론회 및 '11년도 상반기 SW산업 전망 컨퍼런스 계획

1. 개요

□ **(개최배경)**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을 위해 **Global Practice 도입 방안** 강구, SW산업의 **최근 이슈 및 전망을 소개**하기 위한 컨퍼런스 개최

○ 공공 SW사업의 낙후된 발주관행 해소, 중소기업 시장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**新RFP체계와 분할발주제** 도입을 위한 **토론의 場** 마련

○ 또한 '11년 **상반기 SW산업 동향 및 하반기 전망**과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, SNS 등 최신 정보 제공을 통한 **SW신사업 창출 지원** 계획

□ **일시·장소** : '11.6.16(목) 14:00~18:00, 코엑스 컨퍼런스룸(3층 Hall E)

□ **참석자** : SW 공공 발주자·기업 및 관련 종사자 300여명

□ **주 최** : 지경부·행안부 / □ **주 관** : 정보통신산업진흥원

2. 세부 일정

구분	시 간		활 동 계 획	비 고
<1부> SW 산업 정책 토론	14:00~14:05	5'	인사말	NIPA원장
	14:05~14:10	5'	축 사	지경부 성장동력실장
	14:10~14:30	20'	[기조발제] 新RFP 체계 도입방안	삼일PWC
	14:30~14:50	20'	[기조발제] SW사업 분할발주 도입방안	SW선진화포럼
	14:50~15:50	60'	[패널토의] SW사업 선진화 방안	지정 패널
	15:50~16:00	10'	Break Time	
<2부> SW 시장 전망 컨퍼런스	16:00~16:30	30'	2011년도 상반기 SW산업 동향 및 하반기 전망	NIPA
	16:30~17:10	40'	Cloud Computing 사례 및 성공전략	KT
	17:10~17:50	40'	국내 모바일 오픈마켓의 생존전략	SKT

* 공청회 패널 명단 : (정부) 행안·지경·국토부 과장, (수주자) 날리지큐브·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, ITSA 전무, 삼성 SDS 상무, (학계) 국민대 김현수 교수(좌장), 숭실대 심기보 교수, 고려사이버대 황인수 교수

〈 붙임 2 〉 新RFP체계와 분할발주의 의의 및 개념

1. 의의

□ SW사업 추진시 **불명확한 요구사항**과 **빈번한 과업변경**으로 고급 인력 이탈 및 SW사업 품질저하 등 **SW산업 생태계 악화 초래**

* 공공부문 SW사업 75.2%가 사전 기획사업(EA/ISP 등) 未수행, RFP의 60.1%가 외부 도움 없이 발주부서에서 직접 작성('09.11, 공공부문 실태조사, NIPA)

⇒ **요구사업 구체화**, **설계·공정개발**의 **분업화·전문화**를 통해 국내 SW사업 품질 제고 및 기업 국제경쟁력 확보 등 **선진 생태계** 조성

2. 新RFP 체계 및 분할발주의 개념

□ **(新RFP)** 사업 발주를 위한 RFP 작성시 **요구사항이 불분명**한 바, **초기 분석설계 수준의 상세 요구사항** 작성을 위한 컨설팅* 실시

* 현재 시범사업 실시 중으로, 정부가 일부 발주기관을 선정, 컨설팅 비용 지원
  - ('09) 소규모 사업 3개, ('10) 대형 사업 2개, ('11) 중소규모 사업 10개

○ 전문화된 표준 RFP 생성을 위해 요청사항 상세화, 검증 방법론 및 성능·품질 요구사항 상세화, 요구사항 연계관리 기능 등 보완

□ **(분할발주) PMO*의 감독·통제** 아래, **요구사업****(ISP~설계)과 **개발사업*****으로 **분할하여 수행**하는 발주방식

* PMO :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 지원조직, 기획·구축·운영 등 관리
** 요구사업 : SW사업 요구사항과 아키텍처 정의, 시스템 기본설계 수행
*** 개발사업 : 기본설계에 기초하여 개별기능이나 제품단위로 개발 수행

○ 기본설계 단계까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도출하여 **발주자 의도에 부합한 사업 수행**

【현행 vs 新RFP체계 vs 분할발주 방식 비교】

